

박지성 교체 출전…맨유, 볼튼에 완승

지동원 결장 선덜랜드 패배

박지성이 교체 출전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불펜 원더러스를 앞바다에서 제압하고 1위 자리로 되찾았다.

맨유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 경기장에서 열린 2011-2012 시즌 페리미어리그 21라운드 불펜과의 홈경기에서 3-0 대승을 거뒀다.

은퇴 후 맨유 코치로 변신했다가 주전들의 줄부상으로 복귀를 택한 폴 스콜스가 전반 추가시간 선제 결승골을 뽑아냈고 후반 29분 대니 웰백, 후반 38분 마이클 캐리히 한골씩을 보탰다.

앞서 19-20라운드 경기에서 블랙번과 뉴캐슬에 연달아 패했다가 지난 8일 FA컵 64강에서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를 제압한 맨유는 이날 승리로 정규리그 연패를 2경기로

마무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간순위에서도 15승3무3패(승점 48)가 되면서 아직 21라운드 경기를 치르지 않은 맨시티(15승3무2패, 승점 48)를 바짝 추격했다.

박지성은 1-0으로 앞서던 후반 25분 루이스 니나 대신 출전해 20여 분을 뛰면서 팀 승리를 일조했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후반 44분 정면으로 쇄도하며 슈팅 기회를 엿보

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지동원(21)의 소속팀 선덜랜드는 첼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지동원은 교체선수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선덜랜드는 니클라스 벤트너와 스티븐 세세뇽을 앞세워 헬시에 맞섰지만 전반 13분 프랭크 램퍼드에게 선제 결승골을 얻어맞으며 연승 행진을 2경기로 끝냈다. /연합뉴스



승부 넘어 재미

15일 경기도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농구 울스타전에서 선수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진은 없다” 광주시청 육상팀 금빛 출발

정혜정 전국로드레이스 금… “울 전국체전 메달 10개 목표”

광주시청 육상팀의 금빛 질주가 시작됐다.

광주시청 정혜정(22·사진)이 14일 제주도에서 열린 2012 전국로드레이스 여자부 10km에서 36분27초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전국체전 5,

000m와 10,000m 우승자인 정윤희(대전수

자원공사)를 꺾고 차지한 값진 우승이다.

정혜정의 질주속에 정복순(14위), 이세영

(17위)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광주시청은 단

체전 4위를 기록하며 올 시즌 전망을 밝혔다.

광주시청은 ‘국가대표 트리오’인 임희남

(28·단거리)-박태경(32·110m하들)-김덕

현(28·세단뛰기 멀리뛰기)을 앞세워 육상

특히 단거리 강팀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전국체전 여자110m하들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중·장거리까지 영역

을 넓혔다. 정혜정이 순조롭게 스타트를 끊

으면서 ‘전국체전 7개 금메달, 10개 이상 메

달 회득’을 목표로 내세운 광주시청의 순항이 예고된다.

선수영입 등의 호재도 있다.

지난해 홍콩 육상리그대회 400m 계주 금

메달리스트인 충남대 출신 김민관(23)의 영

입으로 계주팀 전력이 보강됐고, 조선대 출

신 해먼지기 선수 박영식(23)도 새로 가

세했다.

또 단거리 대표주자인 임희남의 족쇄도

풀렸다. 임희남은 지난해 대구세계육상선수

권대회에서 앤더슨 양성반을 나오면서 2년

자격 정지 징계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최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임희남이 세계대회 당시 복용한 크레아틴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지정한 금지약

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의로 복용하지 않



았다는 것을 인정해 징계 기간을 6개월로 낮췄다.

4월 12일 징계가 폴리면서 국내 대회는 물론 인천 올림픽 도전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4월 19일부터 개막하는 실업대 향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광

주시청의 질주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심재웅 감독은 “지난 시즌 여러 악재가 있지만 지난해 부진은 더 이상 없다. 올 시즌 전국체전에서 10개 이상의 메달을 따내겠다는 각오로 선수들이 대구와 제주에서 동계 훈련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불대 이상현 프로기사 등록



대불대 이상현(22)이 프로기사의 꿈을 이뤘다. 이상현은 9일부터 15일까지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3회 일반입단 대회에서 8승1패의 성적으로 입단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첫 입단 대회에는 172명이 출전했으며 상위 7명이 입단 자격을 얻었다. 이로써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는 모두 268명(남자 222명, 여자 46명)으로 늘었다.

한편 한국기원은 새롭게 개정한 입단제도를 통해 매년 12명씩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7명을 선발한 한국기원은 7~8월 열릴 여자입단대회에서 2명, 만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 입단대회에서 2명, 지역연구생 입단대회에서 1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김여울기자 wool@

‘윙크보이’ 이용대 세계1위 中 꺾어라

런던올림픽 주요 종목

⑥ 배드민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시범 종목이던 배드민턴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정식종목이 됐다.

2000년 시드니 대회만 결렬을 뛴 우리나라에 ‘금빛 기쁨’을 계속 선사한 혜자 종목이다.

남·여 복식, 남·여 단식, 혼합복식 등 5개 세부종목으로 치러지는 올림픽 배드민턴에서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금(6), 은(7), 동(4) 등 총 17개의 메달을 따냈다.

한국 배드민턴은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박주봉-김문수 조와 황혜영-정소영 조가 각각

남·여 복식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면

서 ‘황금시대’를 열었다. 1996년 애틀랜타 대회에선 혼합복식의 김동문-김영아 조가 정상에 오르고, 여자단식의 방수현이 금메달을 보탰다. 또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 김동문-하태권 조가 남자복식 정상에 올랐고, 2008년 베이징 대회 때는 ‘윙크보이’ 이용대

가 이효정과 한 조를 이룬 혼합복식에서 금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의 벽을 넘어 야 한다. 현재 중국은 남자단식을 뺀 4개 종목에서 모두 세계랭킹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런던 올림픽에서 이용대-정재성 조가 나서는 남자복식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랭킹 2위인 이용대-정재성 조의 최대ライ벌은 1위인 차이원-푸하이평

(중국) 조다.

두 라이벌 조는 세계 랭킹이 1, 2위로 상위 시드를 나누어 배정받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랭킹 4위인 고성현-유연성 조가 준결승에서 차이원-푸하이평 조를 꺾는다면 이번에 출전된다면 태극전사 기리의 결승전 대결을 기대할 수도 있다.

‘깜짝 메달’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은 여자복식이다. 여자복식의 하정은-김민정 조는 중국의 왕사율리-위양 조와 텐징-자오윈례 이 조에 이어 세계랭킹 3위까지 올라섰다.

이용대 하정은 조는 아직 출전할 혼합복식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용대-하정은 조는 아직 충분히 흐름을 맞추지 못해 최근 두 대회에서 연이어 중국의 벽에 가로막혀 우승을 맛보지 못했다. /연합뉴스

비아·씨알 미제정품 전국도매가

★효과 100% 大만족★

한통30, 알미늄 소포장 판매가능

010-3982-9266

(일) 무각사 7시, 문예경문 7시5분, 광

6시40분 염주체육관 출발~목포여객 ▲빛고을무지개산악회 완도 상황봉 2 역 출발(산수동 오거리, 남광주 사거

선 터미널출발9시, 제주도착13:30 월5일(일) 8시 월드컵주차장 ~ 20분 리, 지원동 경유) *다음카페: 광주슬

분~제주관광, 5일눈꽃산행 *다음카페: kwangjuhangil

T.010-8604-8815, 011-644-2524

▲광주한울산악회(귀빈관광여행사) 2

월4일(토)~5일(일) 6시 남광주농협

T.011-620-2002

▲솔잎산악회 고흥금산 적대봉 시간

제(거금대교) 2월12일(일) 8시 광주

정정 공고

2012년 1월 12일에 개최된 채권신고공고 종

회사명 “주식회사 새천관산한우 성유질배합사료”를 “새천관산한우 영농조합” 정명합니다.

2012년 1월 16일

새천관산한우 영농조합

청간인 박장수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직통:(062)227-9600 • FAX:227-9500

◆이메일: dd8111@hanmail.net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시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사무실임대

3층 120평

분할가능

나주시청 정문앞 삼성빌딩

연락처: 010-9217-7570

구. 런던국사거리

1544 - 0600

세상은 우리를 라이벌이라 합니다

동일 8

파레온

2011.12

구. 런던국사거리

1544 - 0600

세상은 우리를 라이벌이라 합니다

동일 8

파레온

2011.12

구. 런던국사거리

1544 - 0600

세상은 우리를 라이벌이라 합니다

동일 8